

## 같이 보기

: 역사에 길을 묻다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하는 것이 종족 번식에 유리하다는 것은 인간은 물론 모든 동물의 공통점이다. 특히 인류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외모를 가꾸거나 단점을 가리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써왔다. 남녀불문하고 시대별 미적 기준에 맞추어 노력해온 그 일면에는 화장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글 편집실

# 약점은 가리고 장점은 돋보이게, **화장**

## 그리고 화장품





### 이집트인 모두 즐겨 사용했던 화장품

화장품은 얼굴의 결점을 커버하거나 피부, 모발 등의 질감을 유지하고 체취를 감추기 위해 사용한다. 이런 화장품으로 약점을 감추고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은 인류 역사와 함께 했는데 화장 역시 함께 발전해왔다.

화장이 처음으로 역사에 기록된 것은 고대 이집트. 당시에는 부와 계급의 상징으로, 왕족을 중심으로 화장 문화가 퍼졌다. 이집트 무덤 벽화에서 알 수 있듯, 남녀 모두 눈화장을 칠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눈꺼풀에는 푸른색을 칠했고, 눈은 검은색 아이라인으로 강조했다. 이는 이집트의 따가운 태양열을 반사시키고, 별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색조 화장 외에도 건조하고 뜨거운 기후, 사막에서 불어오는 먼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피부 관리법과 화장품

을 만들었다. 아몬드 오일, 호호바 오일, 꿀, 우유 등으로 보습했고, 노화 방지를 위해서 염소나 당나귀, 유향 등을 사용했다. 또한 꿀, 우유, 계란 노른자 등으로 팩까지 했던 것을 보면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클레오파트라라는 매부리코 같은 외모의 단점을 화장 기술로 보완했다. 또한 피부를 위해 우유로 목욕했고 알로에로 피부에 수분을 공급했다. 이는 지금의 스킨케어라고도 볼 수 있다.

### 화장과 화장품의 암흑기, 그리스 시대

이집트와 달리 그리스에서 화장은 금기시되었다. 매춘부가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런 화장에 대한 그리스의 부정적 인식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도 남아있다. '코스메틱(cosmetic)'은 화장품이란 뜻과 '겉치레에 불과한, 허울뿐인'이란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코스마틱스(Kosmetics)'에서 유래했는데, '창녀의 꾸밈'을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다.

대신 그리스인들은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강조해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했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추구했다. 화장에 대해 부정적이던 그리스는 헬레니즘 문명과 함께 화장 문화도 발달했다. 특히 동양에서 넘어온 짙은 화장이 유행했다고 한다. 오렌지색 헤나로 머리를 염색하거나,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서는 색조 화장과 피부 마사지가 인기였다.

이런 화장 문화는 다시 중세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빠르게 사라졌는데, 기독교적 금욕주의가 퍼졌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화장품은 의학에서 분리됐는데, 이것이 오히려 화장과 화장품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후 르네상스 시대 부흥기를 거쳐, 19세기 후반에야 과학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 천연 화장품의 시작, 르네상스 시대

르네상스 시대에 화장은 다시 유행했다. 상류층에

서는 남성미와 여성미를 표현한 화장술이 성행했다. 창백한 하얀 피부를 만들기 위해 납 성분이 든 화장품을 많은 귀족부인이 사용했는데, 이로 인해 600여 명의 남편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화장품을 사용해 화장을 해준 여성은 사형을 당했다고 한다. 이런 사건 후, 피부 건강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면서 화장품 제조에 대한 규제는 엄격해졌다.

물론,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던 엘리자베스 1세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엘리자베스 1세는 당시 최신 유행인 이탈리아식 화장술과 화장품 매니아였다고 한다. 독살 위협과 여왕의 건강을 위해 자연스럽게 천연 화장품이 개발됐다. 헤어트리트먼트용 로즈마리워터, 스킨케어용 피부연고, 치아미백제, 와인입욕제, 계란과 꿀로 만든 마스크도 있었다고 한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화와 여성들의 사회 진출로 화장품은 여성의 필수품이 됐다. 마사지 크림, 샴푸, 매니큐어 등 다양한 상품이 등장했고



화장품 광고도 발달했다. 재밌는 부분은 시대적 배경이 색조 화장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세계대전이 일어난 1940년대에는 강한 인상을 주는 화장이 인기였다. 정교하게 눈썹을 그렸고, 입체적인 음영을 위해 어두운 색상 파운데이션을 쓰는 등 표현 기술도 다양해졌다.

### 우리나라의 뛰어난 화장품 제조 기술

중국의 화장 역사도 오래됐다. 그중 당나라는 실�크로드를 따라 서역 문화를 먼저 접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유입됐다. 당시 중국인들은 백분으로 얼굴을 하얗게 만들고 화장용 먹으로 눈썹을 강조했다. 손톱에도 다양한 색을 칠했는데, 그 색으로 여성의 신분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일찍부터 화장술과 화장품이 발달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에서 화장술과 화장품이 발달했는데, 삼국 중 신라가 외모에 가장 관심이 높았다. 화랑들도 귀걸이, 팔찌 등 장신구를 착용했고, 백분과 연지를 발랐다. 얼굴을 희게

하는 백분은 쌀가루나 조개껍질을 태운 뒤 빵은 분말, 백토 등을 썼고, 연지는 홍화에 돼지기름을 혼합해 만들었다.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짙은 화장을 천하게 여겼지만, 점차 혼례나 외출 전 하나의 의식이 되었다.

화장품은 대부분 집에서 만들어 사용했기에 제조 기술이 크게 발달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백제에서 화장품 제조 기술을 전수 받았다'는 일본의 옛 문헌으로 보아 매우 높은 수준의 제조 기술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향유(香油)를 수출했고, 조선시대에는 일본에서 화장수 제조 기술을 모방할 정도였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으로 화장품의 산업화가 늦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 섬세한 기술력으로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을 주름잡는 화장품 수출국이 됐다. 아울러 대세가 될 개인 맞춤형 화장품 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